“코로나 극복, 가족연등에 담아요”

현장

봉축 앞둔 조계사, 가족연등공방 만원

10일 행사에 열띤 호응 눈길
40여 가족 참여해 연등 제작
쉼터 · 푸드트럭 배려 돋보여
지역 농산물 등 참가선물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0일 조계사서 열린 가족 연등공방에 참여한 조손이 연등을 함께 만들고 있다.

생활방역의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조계사 앞마당이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놀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목소리를 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10일 경내에서 ‘가족과 함께 연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연등 만들기 행사에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참여한 가족들은 맑은 날씨 속에 저마다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봉축 프로그램 대부분이 취소되는 가운데 진행된 몇 안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5월 30일로 부처님 오신날이 연기되며 연등공방 개장도 한달 가량 지연돼온 터였다. 다른 행사들이 없는 가운데 열린 만큼 ‘가족과 함께 연등 만들기’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석 열기가 높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른 생활방역 첫 주말이어서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인사동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조계사를 방문했다.

이태원 코로나 확산 문제 등으로 다시금 집단감염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서 조계사는 최대한 가족간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40팀의 가족이 참여했다. 연등 공방은 오후 1시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참가가족들은 일찍 도착해 발열 점검 등을 완료했다.

조계사 측은 2019년에 비해 테이블 간 넓은 공간을 배정하고 테이블 사이마다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 용품을 제공했다. 참가한 가족들도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일부는 손에 장갑도 낀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어 보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색종이와 연등에 붙일 한지를 가위로 자르거나 접어 조계사에서 제공한 틀에 붙이기 시작했다.

이날 가족이 함께 연등만들기는 ‘행복한 우리가족’과 ‘코로나19극복 염원’의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온 김상현 씨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었는데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여 밖에 나오니 좋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사찰에서 가족 외에는 서로 접촉을 안하게 하고 야외에서 연등을 만들게 되어서 안심이 된다”며 “이태원 코로나 확산으로 마지막까지 참여를 고민했는데 오길 잘한 듯 하다”고 말했다.

4살 아이와 함께 참여한 문상은 씨는 “아이들과 외출하면 되도록 야외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찰은 법당 외에 대부분의 공간이 열려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날 사찰을 찾은 이들을 위해 차와 음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섭외해 배치했다. 쿠폰을 들고 푸드트럭에서 커피를 마시는 어른들과 군것질을 하는 아이들까지 조계사 앞마당은 일종의 놀이동산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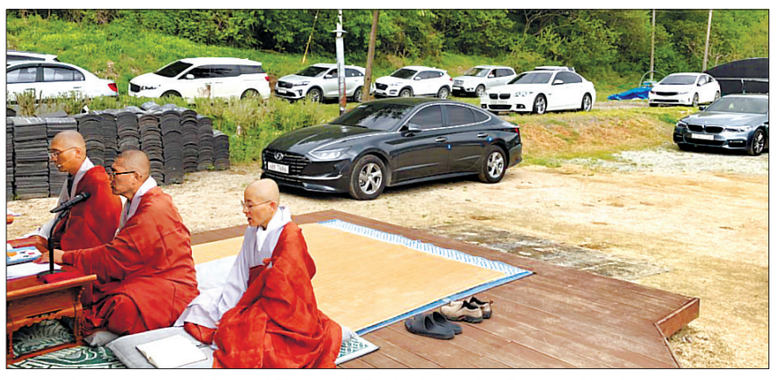
행사는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아이들에겐 장난감이 부모들에겐 조계사와 연계된 해남군의 김 등 농산품이 선물로 전해졌다.

조계사 포교국장 상범 스님은 “이번 연등 만들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불교 역사상 첫 ‘자동차 법회’ 눈길

서산 보원사, 5월 11일
미소기도법회 시범운영

차량서 라디오로 동참
6개월 무선국 개설 허가



서산 보원사가 불교계 최초로 ‘자동차 법회’를 시도했다. 사진은 5월 11일 ‘미소기도법회’ 모습.



사진제공=보원사

‘백제의 미소’ 마애부처님을 모신 서산 보원사 법당 앞마당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마치 참배하듯 법당을 향해 줄지어 주차됐다. 스님들은 법당 안이 아닌 외부에 법석을 펼쳐 마이크로 독경을 하고,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 내부에 앉아 법당을 향해 합장했다. 손엔 저마다 법요집과 염주를 가진 채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이색풍경 ‘자동차 법회’ 현장이다. 서산 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주지 단경)가 5월 11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미소기도 자동차 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이 법당이 아닌 법당 밖 주차된 자동차에 앉아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예불하고 법문을 듣는 방식이다. 불교 역사상 첫 ‘자동차 법회’다.

자동차 법회 봉행을 위해 보원사는 사전에 대전전파관리소로부터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19사태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종교계를 위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신청 받은데 따른 것이다.

주파수를 활용한 자동차 법회는 사찰 내 공간에 신도들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각기 배정받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법당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며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특히 비대면 형식이라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직접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날 보원사 미소기도법회는 시범운영임에도 예상 밖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시작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보원사 신도인 노모를 모시고 법회에 참석한 한 가족은 “사찰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말렸는데 이렇게 자동차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 새롭고 좋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스님은 “코로나19로 사찰이 3개월간 산문을 닫았고 좀 나아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주파수를 신청하고 FM송출기를 구입해 자동차 법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첫 시도이고 전반적으로 낯설 수밖에 없는 법석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원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자동차 법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소외계층 돕는 사람들
② 쪽방촌서 배식봉사 이어가는 김윤석 경감

“코로나로 배곯는 노숙인 생각을”



코로나 대비 대체식 전달
노숙인 지원 감소 안타까움
“젊은 불자 관심 필요해”

영등포의 철길 옆에는 1평에 불과한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이 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의 마지막 거주처로 불리는 쪽방촌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더 힘든 노숙인들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김윤석 마포경찰서 경감(형사팀장)이 주인공이다.

김윤석 경감은 코로나가 한창인 때에도 매주 목요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때 그는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들이 밀집된 곳이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이곳에는 600여 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조차 하기 힘든 소외계층들이다.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는 이들을 위해 김 경감은 2001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김 경감의 봉사에는 수십 년간 함께해 온 불자들이 있다. 바로 쪽방도우미봉사회(조계사 붓다맘봉사단)다. 김 경감은 “이제는 서로 말을 안 해도 이해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봉사자들이 노숙인들을 더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나마 있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해서 말이죠. 일단은 접촉은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초코파이와 음료수 등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본인의 감염위험도 높아지지만 김 경감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게 진짜 봉사”라고 강조했다.

김 경감과 쪽방촌도우미봉사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국수공양에는 예전 같았으면 길게 줄을 서고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배식소를 찾는 이들의 건강이 우려됐기에 김 경감은 시간대별로 따로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거리를 두고 노숙인들이 음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다.

음식을 포장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매주 그를 기다리는 이들 때문이었다. 봉사가 빠지는 날이면 연락이 올 정도로 그와 쪽방촌 노숙인들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

김윤석 경감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경계했다. 일회성에 끝날 거란 시선도 있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마음을 여는게 보였다. 이젠 서로 안보이면 걱정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윤석 경감은 코로나가 끝나면 젊은 불자들의 봉사 참여가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십수년간 봉사를 진행하며, 기존의 봉사회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젊은 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해서다.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다보면 봉사자분들이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드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 경감은 최근에는 봉사회원들과 함께 예전 근무처였던 강서구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에는 독거어르신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김 경감은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고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는 곳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게 남은 꿈”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자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후원문의 (02)2043-3610
후원계좌 317-0009-1736-21 농협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

